

「신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 세미나 개최

- 김혜천 목원대 교수 · 이왕건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제발표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은 3월 15일 오후3시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 행정수도 이전 관계자, 유관기관, 학계, 관련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이란 주제의 정기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국토연구원 이왕건박사

등 2명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자문위원 등 6명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화살세미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김혜천 목원대학교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 중 가장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투기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 소형 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의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교수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인한 외부인구의 유입은 충청권내 지역간에도 상이한 유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소규모도시의 경우 인구와 자본, 노동력의 신행정수도로의 유출에 따른 도시기능 약화현상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행정수도 발전방안 중 시급한 것은 녹지지역에 대한 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성장관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예정지역에 있는 기존마을의 계획적 정비방안과 이주민단지를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또 "예정지역의 도시기능이 성숙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개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유연성 있는 도시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개발을 억제하기 보다 계획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오제직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본격 이전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행정수도의 건설을 연계해 나가느냐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한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대평 충남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명 지역발전의 기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우리의 소망이 달성될 때까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애정과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건양대와 학술·연구교류 협약식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과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는 2월 12일 건양대학교 경상학관 2층 회의실에서 「학술·연구교류 협약식」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에 노력키로 했다.

